고양은 어떻게 고양이 됐을까?

‘고양’이라는 지명 속 역사 이야기

이름에는 역사가 담겨있다. 그리고 그 역사에는 당시를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고양’이란 지명에도 이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있을 것이다. 과연 고양시의 이름은 언제부터 고양이었을까? 그리고 왜 고양이 된 것일까? 이러한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삼국사기』를 들춰봤다.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글. 최슬기(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강사)

고양은 고봉과 덕양의 합칭

고양은 한자로 ‘高陽’이라 쓴다. 지역명을 새로 만들 때 서로 다른 지명의 한 글자씩 따서 이름으로 삼는 경우가 대다수이듯, 고양도 고봉(高烽)의 ‘고(高)’와 덕양(德陽)의 ‘양(陽)’을 합쳐서 만든 것이다. 고봉과 덕양의 명칭을 통합한 것은 조선 초기, 1413년(태종13)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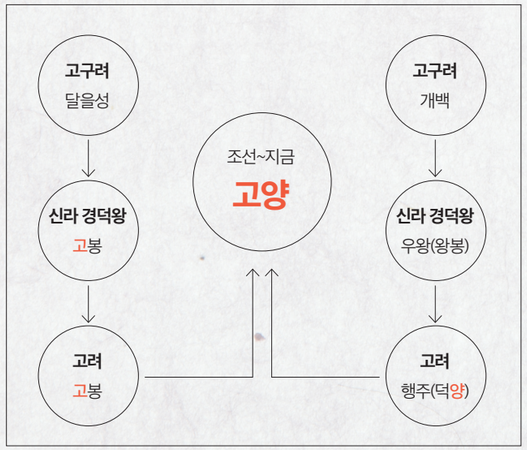
“행주는 예전에 덕양현이었고, 고봉은 그 덕양(행주)에 부속된 지역이었는데, 지금 고봉이라고만 부르게 되어 덕양(행주)이 오히려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니 청컨대 이를 고쳐주소서”라는 어느 선비의 주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금의 ‘고양’이란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고봉은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행주는 언제 덕양이라고 불리게 된 것일까? 덕양은 고려 초기 성종대에 행주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쓰였다고 한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행주와 덕양은 호환되는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행주(덕양)는 고려 초기 생긴 지명으로 그 전 왕조인 신라 경덕왕대에는 왕봉(王逢) 또는 우왕(遇王)으로 불리었다. 신라 경덕왕대에는 지역명칭을 전부 한자로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이 진행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뀐 상당수의 지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지금의 고양을 탄생시킨 ‘고봉’과 ‘덕양’은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된 것일까?

고봉과 덕양의 기원은?

고양의 ‘고’의 연원이 되는 고봉(高烽)은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이전에는 고구려의 영역이었고, 고구려 때의 이름은 달을성(達乙省)이었다. 신라 경덕왕 때 고봉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한씨(漢氏) 여인이 높은 산꼭대기(高)에서 봉화(烽)를 피워 고구려 안장왕(安臧王)을 맞이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고양의 ‘양’의 연원이 된 덕양(행주)은 신라가 이곳을 차지하기 전에는 개백(皆伯)이었고, 신라 경덕왕 때 왕봉(王逢)·우왕(遇王)으로 고쳤는데, 이곳이 개백의 한씨 미녀가 안장왕(王)을 맞이한(遇, 逢)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왕봉 또는 우왕이라고 하였으나 모두 ‘왕을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왕을 만났던 것일까?



‘고양’의 연원, 고봉과 왕봉(우왕)은 모두 한씨 여인이 고구려의 안장왕을 만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장왕은 고구려의 제22대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수왕의 증손자이자 문자왕의 아들이고, 한씨 여인은 당시 개백현에 살던 사람이다. 개백현은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이전에는 백제의 땅이었다. 고구려왕이 백제의 여인을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고양시가 ‘고양’으로 불리게 된 첫 페이지에 자리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한씨 여인과 안장왕이 만난 곳, 고봉과 왕봉(우왕)

이 둘의 사연을 처음 전하는 『삼국사기』에는 자세한 서술은 없고, 다만 “한씨가 안장왕을 맞이한 곳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는 설명만 있을 뿐이다. 다행히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서 구체적 이야기를 전하는데,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고구려 안장왕이 태자 시절 장사꾼의 모습을 하고 백제 땅이던 개백 지역을 왕래하던 중 아름답기로 소문난 한씨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 둘은 곧 사랑을 키워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게 되었고, 안장왕은 자신의 정체를 조용히 밝히며, “나는 본래 고구려의 태자라오. 귀국하여 많은 병사를 이끌고 이 땅을 취하여 반드시 그대를 부인으로 맞겠소”라고 말했다. 이후 고구려로 돌아온 안장왕은 여러 차례 백제를 공격했으나 번번이 패배했다. 그 와중에 한씨는 그 지역의 관리와 억지로 혼인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한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관리는 그녀를 옥에 가뒀고, 이 소식을 들은 안장왕은 을밀이라는 장수와 계략을 세워 개백을 공격하여 끝내 승리했다고 한다. 이로써 한씨와 안장왕은 재회하게 되고, 이후 그 지역에 고봉과 왕봉(우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신채호가 『해상잡록』이라는 책을 인용하여 『조선상고사』에 담은 것인데, 『해상잡록』은 현재 전하지 않아 그 원형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6세기 전반 당시 백제와 고구려의 경계선이 어느 지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전부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원초적인 형태의 기록을 담은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 한씨와 안장왕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부터 전승되어 왔음을 짐작게 한다.

역사적 변천 속에서 고봉과 왕봉이라는 지명 중 왕봉은 고려시대에 행주로 바뀌면서 덕양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고봉과 덕양을 합친 고양이라는 지명이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고양이라는 이름의 첫 장에 바로 한씨와 안장왕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사랑보다는 혐오가 만연한 요즘 같은 때 지명으로까지 안착하게 된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우리에게 소소한 울림을 준다. 이름에는 역사가 담겨있다. 그리고 그 역사에는 당시를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고양시는 한씨와 안장왕의 사연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발음이 유사한 고양이를 캐릭터로 활용하여 귀엽고 친근하게 그 이미지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름이 변하듯, 그 이름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 역시 그 시대가 묻어있는 소중한 역사의 한 장면이다.

최슬기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위만조선과 흉노의 ‘예구’ 교역>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같은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원,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한국고중세사 강사이다. 2016년에 구성된, 신진역사연구자 모임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미디어팀’에서 현재까지 ‘역사공작단’이라는 역사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공저로 <만인만색 역사공작단>(서해문집)이 있다. 매 순간 의미를 추구하며 존재와 의식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